**※ 고충처리인 활동상황**

**2006년~2018년**

**<피해구제 및 오류시정>**

- 2006.11.21일자 10면 「이재정 통일,적당치 않다」제하의 사설에서 성공회대학교는 교수채용 과정에서 가산점 제도 자체가 없고 친북좌파 학자들의 활동공간을 적극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정정보도를 요하여 해당부서 전달 후 조치하도록 함.

- 2006.11.23일자 4면에서 「고용허가제 시행 후 이탈율 10배 급감」라는 기사 중 10배는 사실과 다르며 중소기업중앙회가 관리하는 제조업 분야 산업연수생의 2년 간 입국 인원 대비 이탈률은 1.9%라는 지적이 들어와 해당부서 전달 후 조치하도록 함.

* 2007.5.31일자 1면과 4면의 「청’언론통제 지침’파문」이라는 대제목과 “공식발표 이외 다른 내용 나오면 관련자 문책””한나라 독재광풍…일부부처도 반발 확산”이라는 소제목의 기사에서 보도로 인한 명예 훼손으로 정정 보도를 요청하여 부서로 전달 후 조치하도록 함.
* 2007.6.14일자 「금속노조 정치 파업 No」 관련 기사에서 자동차 4사의 노조 위원장이 11일 긴급 회동을 갖고 금속노조의 정치 파업 투쟁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긴급회동을 갖고 6월 말 금속노조 정치파업을 완성 4사가 중심이 되고, 향후 활동도 완성 4사가 금속노조의 중심이 되어 활동하자고 논의를 위한 회동의 자리였음을 밝혀 이 내용을 부서에 전달 후 조치하도록 함.
* 2007.7.10「로스쿨 정원 2000명선 유력」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적정 인원을 2000명 수준으로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하였으나 교육부는 이 당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을 판단한 바 없다는 지적이 들어와 해당부서에 전달 후 조치하도록 함
* 2008.1.25일자 10면에 「신종마약에 ‘몽롱한 한국’」제목의 보도에 대해 일부 마약의 환각적 효능 및 사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 독자들로 하여금 약물사용을 유발케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들어와 해당부서에 전달 후 조치하도록 함.
* 2008.2.5일자 ‘총선정국 바람난 가족 스타일””부창부수”제하의 기사에서 한나라당 성동갑, 김태기 위원장이 출마하지 않는 대신 배우자의 공천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공천 신청을 적극 만류 하는 입장이라고 알려와 해당부서에 전달 후 조치하도록 함
* 2008.8.24일자 「대학가 ‘국제 커플’ 신풍속도 – “피부색이 다르면 어때요?좋으면 그만이지..”」라는 제목의 기사에 사진 4장과 신상정보가 게재되었다는 항의가 들어와 해당부서에 전달, 조치하도록 함.
* 2009.5.14일자 “현대건설 등 민노총 탈퇴’기사에서 현대건설노조 등 4개사 노조는 08년 1월 31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으로부터 징계 제명 처분을 받았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전달 후 조치하도록 함.
* 2010.4.26일자 웹판에 “ 노숙자,위장 취업 후 승용차 절취’라는 기사제목을 게재하였으나 ‘위장’이 아닌 친구와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실제 직원으로 일하던 것이며,;승용차 절취’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들어와 정정보도함.
* 2010.4.27일자 「헤럴드경제닷컴」뉴스섹션 “민노총 총파업 비난글 봇물…연기 불가피할 듯” 제하의 보도에서 “쇄도”하거나”쏟아지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일부 비난 의견이 있었다”로 해당부서 전달 후 조치하도록 함.
* 2010.4.27일자 10면 “민노총 홈페이지에 총파업 비난글 쇄도”제하의 보도에서 “쇄도”하거나”쏟아지고 있다”고 했으나, 이는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일부 비난 의견이 있었다”로 해당부서 전달 후 조치하도록 함.
* 2010.4.30일자 25면 “비리 혐의 공무원 목매 자살” 제하의 기사 보도 시 자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한다는 시정권고를 해당부서에 전달 후 조치하도록 함.
* 2010.10.27일자 본사 홈페이지 사회/교육면에 게재된 「 “더 빨리,떠 빨리”, 사라진 봄 가을 한국인의 기질을 바꾼다? 」 제하의 보도에 사진 게재에 초상권 침해의 항의가 들어와 해당부서에 전달 후 조치하도록 함.